

철학사

43. 로크의 종교, 윤리, 정치에 대한 견해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그의 인식론이 종교, 윤리, 그리고 정치에 관한 저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식론과 이러한 다른 사상 영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지점은 지난번에 강조했던 증거주의일 것 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계시와 이성, 신앙과 이성에 대한 그의 논의에 매우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 이해에 관한 그의 에세이 4권 18장과 19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저희 선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두 장은 모두 계시를 우리가 오직 이성만으로 아는 명제에 새로운 명제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가 말하는 지식은 명제, 즉 판단을 담고 있는 명제와 그 주어, 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일 겁니다. 결국, 지식은 어떤 것을 주어에 대해 술어를 붙이는 관념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시는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추가적인 명제들을 그 지식에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명제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적으로 보는 듯하다 . 그것은 열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그러한 의미의 종교적 열광에 반대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지식이 명제적이며, 명제로 구성된다는 그의 견해에 있습니다. 즉, 계시 또한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명제 중 일부는 이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명제는 당연히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성에 부합하는 명제는 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성을 넘어서지만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 명제 역시 계시의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에 어긋나거나 이성과 모순되는 것은 계시가 될 수 없다.

그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연 이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 아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이성적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이성을 길잡이 삼으십시오. 계시라고 주장되는 것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적 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계시된 명제는 모든 명제 중에서 가장 높은 확실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마치 신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에 의해 판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는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신앙이란 제안자의 신뢰나 증언에 근거하여 명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제안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명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과 관련하여 이성에 대해 언급한 몇 단락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신앙과 구별됩니다. 저는 이성을 마음이 자연적 능력, 즉 관념을 통해 얻은 생각들로부터 추론하여 명제나 진리의 확실성 또는 개연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관념들 말입니다. 감각이나 반사를 통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성은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관념으로부터 추론된 명제의 확실성이나 개연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이성에 의해 도출되지 않고, 명제를 제시한 사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 믿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식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개념의 전부인가? 순전히 인지적인 행위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가 열정, 개인적 계시, 내면의 빛과 같은 계시라고 부르는 것, 즉 웨이커 전통에서 말하는 계시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배척합니다. 이성 없는 계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이성이 중요합니다.

로크는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말한 내용보다 말하지 않은 내용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내용만 놓고 보면, 계시와는 별개로 종교에 접근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신론의 발전은 종종 로크의 무의식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이성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신론은 계시와는 독립적으로 오직 이성을 통해 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론은 그 기원을 로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 이전에도 영국에서는 자연 종교로 알려진 사상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플라톤주의적 맥락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계속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종교는 계시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적 지식에만 근거한 이신론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크의 인식론에 의해 촉진된 발전이었다.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럼 로크와 그리스도, 마리아는 이성의 작용 밖에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로크는 계시의 가능성뿐 아니라 기독교 계시, 즉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의 합리성』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바라보는데, 그의 주장에 대한 해석을 누구의 관점에서 따르느냐에 따라 그는 철저히 정통적인 기독교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보다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잠깐 훑어보기만 해도 성경적 명제들을 하나의 일관된 가르침으로 엮어내려는 그의 시도가 분명해집니다.

그건 그의 저서, 『기독교의 합리성』입니다. 그는 종교에 관한 또 다른 저서인 『관용에 관한 편지』도 썼는데, 아마 그 책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기는 17세기 말, 영국이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뒤섞인 내전을 겪던 때입니다. 영국 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17세기 내내 계속되었고, 결국 1688년 무혈 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도인 윌리엄과 메리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용은 거의 없었죠. 실제로 그 시기에 5마일 법(Five Mile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에서 5마일 이내 지역에서 비국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일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영국 남동쪽 끝자락인 도버에서 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습관이자 관습이었습니다.

매년 성금요일이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5~6마일(약 8~10km)을 걸어 시골의 작은 마을인 애소른(Aethorn)으로 가서,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교회의 기념일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켄트 지역의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캔터베리, 포크스톤, 헨 베이, 마게이트, 램즈게이트, 샌드위치데일 등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바퀴살처럼 여러 곳에서 애소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19세기에 침례교인들이 고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관용령이 발표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17세기 후반의 존 로크가 종교적 관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강조하고, 신념의 자유와 그 신념을 실천할 자유를 옹호했죠. 네.

그렇다면 그런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중재 외에 유일한 대안은 권력 정치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학들의 정치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물론 과거에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존 로크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좋아요. 도덕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인식론은 윤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이미 읽으셨듯이 선천적인 도덕 관념은 없습니다. 선천적인 도덕 지식도 없습니다. 그의 경험주의는 이를 부정하며, 선천적 관념에 대한 그의 반론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천적 관념에 대한 반론으로 문화마다 신념의 다양성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존 로크가 바로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도덕적 지식은 다른 모든 종류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감각과 성찰이라는 단순한 관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크는 우리가 도덕적 지식을 습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를 증명을 통한 지식입니다. 그는 지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직관, 증명, 그리고 감각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지식과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한 지식을 통해 도덕적 지식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따라, 로크는 우리가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가 시민 정부에 관한 에세이에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하려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에게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그 주제를 다룬 훨씬 더 긴 저서, 즉 자연법에 관한 에세이, 자연도덕법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종류의 도덕적 지식을 옹호합니다. 도덕적 지식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감각과 성찰, 즉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신께서 도덕성을 우리의 행복과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실제로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도덕적 스승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우리의 도덕적 스승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적 확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특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옳고 그름, 즉 도덕적 옳고 그름은 실용적인 효용의 문제가 되는데, 이로써 로크는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곧 발전하게 될 공리주의로 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가 처음은 아닙니다. 베이컨과 홉스를 떠올려보면, 그들은 지식을 실용적인 효용성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홉스의 윤리학과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피하고 생존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지식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도덕적 지식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도덕적 문제들을 가르쳐주며, 성경에 제시된 신성한 도덕률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자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식론은 종교에 적용될 때 그가 옹호하고자 하는 윤리로 이어진다.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도 이를 살펴보자. 이 시대는 기계론적 과학의 시대라는 점을 기억하라.

원인, 결과, 메커니즘.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들은 철저한 결정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지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데카르트는 사고하는 존재인 정신을 과학의 인과적 메커니즘의 예외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고자 했다. 그의 심신 이원론이야말로 자유의지를 지켜낸 것이다. 로크는 이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를 상당히 따르고 있다.

그는 자유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자유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행동의 자유. 그는 의지의 자유,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여긴다.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두 가지 범주를 뒤섞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능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도 있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힘. 즉, 실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반면에,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네, 우리는 실제로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다른 일보다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호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성찰 또한 감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야기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의지 그 자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의지는 야기된 생각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 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행동을 성찰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데카르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는 데카르트와 달리 의지의 자유보다는 행동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가 그의 정치 사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로서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에게 마땅한 것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곧바로 권리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권리 이론을 다루는 윤리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생명권이 있다면, 당신은 내게 살아갈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게 재산권이 있다면, 당신은 내게 재산을 소유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러한 인간 자유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 철학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시민 정부론에서 그가 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시민 정부론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당시 다른 정치적 견해들에 대한 반응이었고, 두 번째 주장은 그 자신의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도덕적 지식과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연 상태와 시민 사회를 구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자유와 동등한 행동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등한 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자연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본래적인 천부적 권리, 즉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리 중 세 가지를 명시하셨습니다.

생명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생명권이 우선합니다. 행동하려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권입니다.

로크는 재산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매우 신중하게 언급하지만, 때때로 자유기업이 초래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저서인 시민 정부론을 읽어보면, 아메리카 대륙 정착에 대해 논하면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은 자신과 부양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는 한, 그 땅에서 일구어낸 노동의 결실과 그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존 로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니.

이는 로버트 노직 하버드대 교수가 그의 저서 『무정부주의, 국가, 유토피아』에서 주장한 무한한 재산 취득권과는 거리가 멀다. 존 로크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산권을 옹호했다. 그가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는 그의 청교도적 유산에서 발견되는 창조 명령에 대한 그의 해석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해진다.

창조 명령은 경작된 적 없는 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하는 것은 자연권론, 일종의 자연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연법은 목적론과 특정한 자연적 성향 등을 강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보다는 이성적 존재에게 적합한 스토아 철학 전통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 즉 그 권리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려는 시도, 즉 도둑에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이 부여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시민 사회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시민 사회는 계약적 체제입니다.

우리의 공동생활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 자연권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약적 협정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자, 이제 민사 소송 그 사회는 온갖 종류의 계약 관계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이성의 지배하에 있는 계약 관계로 본 결혼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포함되는데, 제 생각에 그는 당시에는 고용뿐 아니라 도제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치체인 정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와 사회 윤리에 대한 계약주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주의적 기반을 가진 정부. 이는 봉건 군주의 권리나 왕권 신수설과는 분명히 크게 다르지만, 토머스 홉스의 사상처럼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유형의 계약주의적 체제이다. 로크의 경우, 권리를 군주에게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군주가 그러한 권리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매우 다른 종류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그는 일종의 입헌 정부, 즉 헌법적 견제와 권력 분립, 군주의 권력에 대한 도덕적 제한, 전쟁과 혁명 등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도덕적 제한을 갖춘 정부를 원했습니다.

자연권 이론을 적용하여 정치 이론을 전개하는 거죠. 음, 로크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흐름과 연속성이 보이시나요? 라이언, 저는 그가 제시된 도덕에 대한 이해와 개념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제 말은, 제시된 도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도덕에 대한 관념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도덕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실재론, 즉 보편자에 대한 관념에서 도덕에 대한 관념은 실제 보편자, 즉 자연 속에서 작용하거나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관념입니다.

개념주의자에게 있어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개념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실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실재하는 보편자가 실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개념주의자는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은 일반적인 개념, 즉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주의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그리고 이는 중세 아벨라르의 사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념주의자는 "어떻게 하면 신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로크가 제시하는 도덕적 인식의 수단은, 신이 인간의 도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도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다른 하나는 삶 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입니다.

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일종의 공통된 도덕 법칙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실증적인 방법은 단지 개연성만 알려줄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주의자와 신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주의자가 부정하는 것은 단지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형상, 즉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것들이 신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자연에서 작용하는 실재하는 원리, 즉 근원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영원한 것, 즉 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형상들은 신의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의 형상들은 실제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재론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아퀴나스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두려웠어요. 로크를 읽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아퀴나스가 떠올랐거든요. 네.

둘은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음, 보시다시피 저는 방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실재론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편자에 대해서는 온건한 실재론자죠. 왜냐하면 그는 개인이 되는 것, 인간이 되는 것, 생물학적으로 동물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육체적 존재가 되는 것에는 실재하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과 과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형이상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로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로크가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인간 존재의 일반적인 특성, 즉 인간 본질에 논리적으로 내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단지 개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인간 존재의 본질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우리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일종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아닌 로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인식론을 통해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종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그 안에서 작용하는 실제 본질, 즉 실제 형상의 본성을 추상화하려고 합니다.

자, 로크는 추상적인 관념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단순한 관념들로부터 공통점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 즉, 일반적인 관념, 추상적인 일반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형태는 일반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통점도 아니죠. 그것은 실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토마스 아퀴나스와 개념주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가 그 구분을 하려고 할 때 보였던 모호함과 막힘 현상을 기억하세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넬. 개념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자유, 즉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생각하거나 선호할 수 있는 힘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권리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생각의 힘에 기반하고 있죠. 저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각할 권리보다 더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그의 정치 이론을 포함한 모든 윤리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면, 그 전제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야 하죠. 아시겠죠?

우리가 행동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이컨과 홉스도 그렇게 말했죠 . 우리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아이디어, 복잡한 아이디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추상적 관념이 복합적 관념의 한 유형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는 복합적 관념을 다루는 부분에서 추상적 관념에 대해 처음 언급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어 철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추상적 관념을 다루죠.

다시 말해, 그는 추상적인 개념이란 단순히 경험적 일반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모든 인간이 생각한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개념화한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필수적인 특징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어떤 것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을 되뇌이고 계셨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보편적 원리, 다시 말해 '그러므로'라는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로크에게는 특정한 경우에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제쳐두고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제가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는 아주 쉽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는 아주 쉽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음, 제 생각에 그는 성경에 이성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고 말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계시 자체에 모순되는 계시가 되겠죠? 자기모순적인 계시 말입니다.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논리의 법칙이 무효하다는 계시를 받았다면, 즉 모든 성경적 진리가 무효화된다면요?

네, 그는 모든 성경적 가르침이 계시에 부합하거나 계시를 초월하지만, 계시와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시라고 했나요? 지워주세요. 모든 성경적 가르침은 이성에 부합하거나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게 바로 존 로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확정적인 결론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19세기에 과학과 종교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역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마크 놀(Mark Knoll)의 저서를 읽어보셨다면, 그가 역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베이컨식 과학 이상, 즉 순전히 객관적인 경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8세기에 로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에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19세기 영국과 이 나라의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실재론이라고 부르는, 과학에 대한 실재론적 이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의 진리 주장과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종교의 진리 주장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학은 현실적으로 말하지만, 궁극적인 실재는 물질의 본질이 아니라 정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철학에서는 실재론과 반실재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진화론을 둘러싼 창조과학 논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창조과학 운동에는 과학에 대한 매우 무조건적인 실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이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과학은 진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고, 창조과학만이 진정한 과학이라는 거죠. 결국 두 가지 실재론적 과학 해석 사이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은 특정한 작동 조건, 즉 추가적인 결과가 관찰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현실의 본질, 특히 과거의 일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순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요, 과학은 어차피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지만, 과학 연구에는 온갖 전제들이 작용하고 있죠. 쿤의 혁명 이론, 즉 과학 혁명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개별 과학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다는 겁니다.” 저는 라크가 웨슬리안과 종교적 열정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는 열광적인 신봉자들이 검증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직관들을 계시처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직관들은 모두 이성에 기반한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공개된 자료는 아닙니다. 어제 미국 과학 협회 저널인 Perspectives 최신호(12월호인 것 같습니다)에 실린 사라 마일스 박사의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1월호가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12월호에 실렸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18세기 과학과 신학의 논쟁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광주의자들, 특히 웨슬리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추가적인 결과가 관찰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과학은 현실의 본질, 특히 과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요, 과학은 어차피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지만, 과학 연구에는 온갖 전제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쿤의 혁명 이론, 즉 과학 혁명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개별 과학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다는 거죠.”

라크가 웨슬리안 열광주의자들을 왜 문제 삼았는지 궁금하네요. 라크는 열광주의자들이 이성으로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직관을 계시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직관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공개된 자료는 아닙니다. 어제 미국 과학 협회 저널인 Perspectives 최신호(12월호인 것 같습니다)에 실린 사라 마일스 박사의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1월호가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12월호에 실렸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18 세기 과학과 신학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광주의자들, 특히 웨슬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좀 보세요 . 저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말씀하실 게 있다면 과학의 잠정성, 과학의 변화, 그리고 과학이 래크 시대에 생각했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인식 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 바로 해석학적 문제들이 로크 시대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로크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 관련된 문제들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해석하고 계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의 복잡성은 과학과 텍스트 해석에서 인간의 주관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석 이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요? 로크의 책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로크가 그 부분을 언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변증론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제 말은, 그는 성경이 계시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로크가 성경이 계시라는 주장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로크주의자는 어떻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크주의자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논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의 존재, 즉 자기 계시가 가능한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신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논증했다고 가정한다면, 계시가 있을 가능성, 즉 그럴듯한 근거가 적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시 에 대한 주장을 검토 해야 합니다 . 계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만약 계시의 내용이 이성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성에 부합한다면, 설령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수용 가능하고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 즉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로크 시대 이후 영국 변증학에서 나타난 특징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증거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즉, 성경에서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이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관성 과

정합성을 보여줌으로써 개연성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암묵적인 순환 논리를 피하려는 추가적인 절차가 개발되었다 . 계시라면 참이어야 하고, 참이므로 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요, 그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순환 논증을 피하기 위해, 성경이 주장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려하여, 그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계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계시가 존재할 가능성, 즉 그럴듯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 에 대한 주장을 검토 해야 합니다 .

계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시의 내용이 이성애 어긋난다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애 부합한다면, 비록 이성을 넘어서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수용 가능하고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 개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성과 일치하는 부분, 즉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로크 시대 이후 영국 변증학에서 나타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증거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도는 성경에서 역사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 즉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관성 과 정합성을 보여줌으로써 개연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암묵적인 순환 논리를 피하려는 추가적인 절차가 개발되었다 . 계시라면 참이어야 하고, 참이므로 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요, 그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를 확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 그런 순환 논증을 피하려고 했던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이 주장하는 한 가지는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려하여, 그가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성경의 계시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자 BB 위필드가 발전시킨 논증 방식입니다.

그것이 충분한지는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증학에 미친 로크의 영향은 증거주의적 방향이었습니다. 성경이 신의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질문입니다.

특정 구절은 떠오르지 않네요 . 기독교의 합리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속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의 영향은 사고의 법칙 자체에 미친 것이라기보다는 사고의 법칙을 준수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것입니다. 사고의 법칙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의 법칙을 준수하려는 의지, 감정적 능력, 도덕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편견, 맹점 등등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